

# 輸出先導型 經濟에 관한 諸理論과 模型

韓 昇 洙\*

.....〈目 次〉.....

- I. 貿易과 經濟成長
- II. 輸出과 經濟成長
  - 1. 序 論
  - 2. 「古典學派」的 接近
  - 3. 「新古典學派」的 接近
  - 4. 「現代」的 (「케인지안」的) 接近
- III. 輸出先導型成長; 몇개의 實證的 研究

## I. 貿易과 經濟成長

國際貿易과 經濟成長의 關係는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問題는 經濟成長이 國際貿易에 미치는 效果와 國際貿易이 經濟成長에 미치는 效果로 兩分하여 접근할 수 있다.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는 國際貿易은 國民經濟를 先導할 수도 있고, 단순히 均衡시킬 수도 있으며 또 國民經濟를 落後시킬 수도 있다는 세가지 可能한 模型을 제시한 바 있다.<sup>(1)</sup> 킨들버거의 分類에 따라 國際貿易과 經濟成長의 關係를 規定한다면 貿易이 國民經濟를 先導하는 것은 國際貿易이 經濟成長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함으로써 可能할 것이며, 國民經濟가 國際貿易을 先導하는 部分은 經濟開發이 國際貿易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하여 접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經濟成長이 貿易에 미치는 效果는 히스가 「長期的 달러問題」(The Long-Run Dollar Problem)라는 演題로 옥스포드大學校의 드루몬드敎授職(Drummond Professorship)에의 취임 강연 이후 활발히 연구되었다.<sup>(2)</sup> 히스는 1952년에 있었던 윌리엄즈(J. H. Williams)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敎授

(1) Charles P. Kindleberger, *Foreign Trade and the National Econom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62, p.195.

(2) J.R. Hicks, "An Inaugural Lecture," *Oxford Economic Papers*, N.S. Vol. 5, No. 2, Jun. 1953, pp. 117-35, reprinted as "The Long-Run Dollar Problem" in AEA, *Readings in International Economics*, Allen & Unwin, London, 1968, pp.441-454.

의 스탬프紀念講演(Stamp Memorial Lecture)<sup>(3)</sup>의 내용에서 자극을 받은 것 같다. 윌리엄즈는 미국내에서 生産性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餘他地域에서 鎔乏現象을 야기시켰다고 分析하면서 바로 이러한 生産性 격차의 문제는 古典學派 혹은 傳統的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充分히 취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히스는 成長(生産性的 增加)이 貿易에 미치는 效果에 관하여 리카아도를 비롯한 古典學派들이, 윌리엄즈가 주장하듯이, 그렇게 素朴히 問題를 다루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論爭의 分析過程에서 히스는 生産性的 增加가 輸出産業에 나타나면 이것을 輸出偏向的(export-biased)이라 하였으며 이것이 外國의 輸出品과 경쟁하는 國內産業에서 나타나면 輸入偏向的(import-biased)이라고 하면서 經濟開發過程을 始動시키는 生産性的 增加는 輸出偏向的(export-biased)일 것이라고 分析하였다.

히스의 講演 이후 특히 존슨(Harry G. Johnson), 미샨(E.J. Mishan), 코오든(W.M. Corden) 등이 1950년대 中盤期에 걸쳐 經濟成長이 國際貿易에 미치는 效果에 대하여 여러 가지 分析을 시도하였다.<sup>(4)</sup> 그 이후 이 분야에는 많은 論文들이 발표되었다.<sup>(5)</sup>

그 중에서도 經濟成長은 貿易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經濟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貿易 메카니즘의 假定下에서는 成長國에게 利得이 아니라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를 것이라는 즉 窮乏化成長(immisering growth)에 관한 바그와티(J. Bhagwati)의 主張이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바그와티의 論文은 經濟成長은 產出量을 增加시키지만 이러한 產出量의 增加는 오히려 交易條件을 惡化시켜 成長의 利得이 없이 오히려 성장국에서 實

(3) J.H. Williams, *Economic Stability in the Modern World: The Stamp Memorial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London*, 1952.

(4) J.R. Hicks, "The Long-Run Dollar Problems," *op. cit.*, pp.441-442. H.G. Johnson, "Economic Expansion and International Trad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XXIII, No. 2, May 1955, pp.95-112, reprinted in H.G. Johns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Growth*, Allen and Unwin, London, 1965, 3rd Impression, pp.65-93. D.M. Bensusan-Butt, "A Model of Trade and Accumu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XIV Sep. 1954, pp.511-29. E.J. Mishan, "The Long-Run Dollar Problems; A Comment," *Oxford Economic Papers*, N.S. Vol. 7, No. 2, Jun. 1955. H.G. Johnson,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Nationaløkonomisk Tidsskrift*, 97 Bund 5-6 Hefte 1959, pp.253-72, reprinted in H.G. Johnson,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Allen & Unwin, London, 1964, pp.75-98. M.W. Corden, "Economic Expansion and International Trade; A Geometrical Approach," *Oxford Economic Papers*, N.S. Vol. 8, No. 2, Jun. 1956. H. Oniki and H. Uzawa "Patterns of Trade and Investment in a Dynamic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XXXII, Jan. 1965, pp.15-38.

(5) 이分野에 관한 論文들은 H.G. Johnson,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pp.99-103 參照. H.G. Johnson, "The Theory of Trade and Growth: A Diagrammatic Approach," J.N. Bhagwati, *et al.*, *op. cit.*, pp.144-167.

質所得의 減少를 초래시킬 것이라는 것이다.<sup>(6)</sup>

古典學派와 新古典學派에 속하는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은 貿易이 比較生産費原理에 따라 生産의 效率性を 提高시키며 厚生을 增進시킬 뿐만 아니라 貿易에 宗사하는 나라의 經濟開發에도 적지 않은 貢獻을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즉 貿易으로 부터의 靜態的 利得(static gains)뿐만 아니라 貿易에서 유발되는 動態的 利得(dynamic benefits)이 經濟成長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貿易이 經濟成長에 미치는 動態的 效果는 古典學派나 新古典學派의 主要關心의 對象은 아니었으나 貿易이 國際特化를 촉진시키는 靜態的 利得 이외에도 動態的으로 成長을 촉진시킨다는 論議는 특히 古典學派 學者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sup>(7)</sup>

로버트슨(D.H. Robertson)은 19世紀에 貿易이 世界의 經濟生活에 접하던 重要한 役割을 다시 再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스스로의 質問에 대하여 19世紀의 貿易을 통한 特化는 주어진 人間의 勞動力을 最大限으로 활용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經濟成長의 原動力(engine of growth)이었다고 指稱하였다.<sup>(8)</sup> 물론 로버트슨의 講演은 1930年代 保護主義的 經濟政策의 時代的 背景에서 自由貿易主義의 長點을 나열하고 있었음을 看過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는 맬더스가 걱정하였던 過剩人口의 문제는 貿易의 盛行으로 잠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世紀의 偉大한 特化는 農產物과 工產物의 交換뿐만 아니라 後進國에게 資本財의 供給과 外國人投資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sup>(9)</sup>

물론 19世紀와 今世紀의 貿易패턴으로 인하여 先進國은 後進國의 成長에 크게 貢獻하였다는 傳統學派의 主張에 대하여 일부 批判論者들은 後進國들이 原料를 輸出하고 製造品을 輸入하도록 强要된 19世紀의 貿易패턴은 後進國의 經濟成長에 不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0)</sup> 前者에 속하는 너시(Ragnar Nurkse)는 19世紀의 貿易을 통한 後進國의 開發方式은

(6) Jagdish Bhagwati, "Immiserizing Growth; A Geometric Not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XXV, No. 3, Jun. 1958, pp.201-205, reprinted in AEA, *Readings in International Economics*, pp.300-305.

(7) David Hume, *Political Discourse*, 1752.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Vol. I. ed. by Canan. D. Ricard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Chapter VII. J.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48, Book I, Chapt. X Sect. 1, Book III, Chapt. XVII, Sect. 5, Book V, Chapt. III, Sect. 1.

(8) D.H. Robertso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Journal*, XLVIII, Mar. 1938, pp.1-14, reprinted in AEA, *Reading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llen & Unwin, London, 1949, p.501.

(9) *Ibid.*, pp.501-503.

(10) 批判論者들은 J.H. Williams,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Reconsidered," *Economic Journal*, No. 39, 1929, pp.195-209, reprinted in AEA, *Reading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G. Myrdal,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 and Prospects*, Harper & Row, New York, 1956. R. Prebis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al Problems*: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1950. Hans Singer, "The Distribution

20世紀에 들어와 變形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20世紀에는 先進國들이 原料에 대한 需要擴大를 통하여 그들의 成長率을 後進國에 輸出하는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技術의 進歩에 따라 原料의 比重이 漸減하는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1)</sup> 히크스의 말대로 19世紀와 20世紀 사이에 國際貿易의 經濟的 環境을 큰 變革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sup>(12)</sup>

히크스는 經濟環境의 變化를 英國과 美國의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면서 貿易은 19世紀에 兩國에 經濟成長의 촉진제적 역할을 하였으나 美國의 生産性 增加率이 英國보다 빨라지게 되자 短期的 貨幣現象으로 나타났던 不均衡狀態가 長期化하였고 이것은 다시 實物部門에 反映이 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그러나 녀시는 이러한 經濟環境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國際特化的 基本的 바탕은 不變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先進國의 資本은 原料需要의 팽창으로 後進國의 原料開發에 많이 投資되었다고 설파하고 있다.<sup>(14)</sup>

하벌러(Gottfried Haberler)는 녀시보다도 더 強力하게 19世紀와 마찬가지로 20世紀에도 國際貿易이 후진국의 經濟開發에 공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偉大한 貢獻은 自由貿易主義가 지속되는 한 未來에는 더욱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하벌러는 리카아도의 勞動價値說에 입각한 古典學派의 比較優位說에 機會費用의 概念을 도입하여 新古典學派의 테두리 안에서 貿易이 成長에 미치는 效果를 분석하고 있다.

하벌러에 의하면 古典學派理論의 比較優位論에 의해 緣由되는 靜態의 利得이 貿易으로부터의 唯一한 利得이 아니며 貿易은 交易國에게 動態의 利得이라 할 수 있는 「間接的 利益」(indirect benefits)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밀이 처음 言及한 「間接的 利得」은 新古典學派에 속하는 貿易理論家들에 의하여 비교적 경시되었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間接的 利益은 生産可

of Gains between Investing and Borrowing Countries," *Papers and Proceedings of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XL, No. 2, May 1950, pp.473-485. UN,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Report by the Secretary General of UNCTAD, New York, 1964, Statement of Issues by LDC viewpoints. R. Prebish, "Commercial Polic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Proceedings*, Vol. 49, May 1959, pp.251-273. T. Balogh, *Unequal Partners*, Vol. I, Blackwell, Oxford, 1963.

- (11) Ragnar Nurkse,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First Wicksell Lecture, Stockholm, Apr. 1959, reprinted in J.D. Theberge, ed., *Economics of Trade and Development*, Wiley & Sons, London, 1968, p.99. Hans Singer, AEA, *Readings*, p.312.
- (12) J.R. Hicks, "The Long-Run Dollar Problems," reprinted in AEA, *Readings in International Economics*, p.451.
- (13) J.R. Hicks, *op. cit.*, pp.450-451.
- (14) R. Nurkse, *op. cit.*, pp.100-101.
- (15) Gottfried Haberler,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Bank of Egypt, Cairo, 1959, reprinted in J.D. Theberge ed., *op. cit.*, p.103.
- (16) 新古典學派理論이 間接的 利得에 관한 取扱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要因이 正確하게 수학적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이유인 듯 하다고 한다. G. Haberler,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berge ed., *op. cit.*, p.108, Footnote 9.

能曲線을 右方으로 擴大시켜 生産能力을 增加시킨다. 하벌리에 의하면 우선 貿易으로 經濟開發에 必須의인 資本財, 機械, 資料와 中間財를 供給하며 둘째 技術知識을 傳播하는 道具 일 뿐만 아니라 노우하우(know-how), 技術, 經營能力 등을 外國에서 들어오는 媒介體가 되고 있고 세계 先進國으로부터 後進國에 國際資本의 移動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sup>(17)</sup> 이와 같은 利得이 靜態的 分析에 의하여 가능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민트(Hla Myint)는 「古典學派」의 成長과 관련된 貿易理論을 靜態的 比較優位分析과 獨立시켜 Vent-for-Surplus 理論과 生産性理論으로 區分하고 있다.<sup>(18)</sup> 즉 그는 古典學派의 國際貿易理論을 經濟開發과 연결시키면서 아담 스미드를 引用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아담 스미드는 그의 國富論 第1卷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어느 地域이 어떤 地域과 交易을 하고있든 이들은 貿易으로부터 두가지 利得을 취하고 있다. 國內需要가 없는 勞動과 土地의 生産物의 剩餘分(surplus part)이 輸出되고 그 대신 國內需要가 있는 것들이 輸入된다. 貿易은 剩餘分을 다른 財貨와 交換可能토록 하여 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며 欲求(wants)를 충족시키고 滿足度(enjoyment)를 增加시킨다. 貿易을 통하여 어느 製造品이나 技術이 完全할 수 있도록 하는 分業이 國內市場의 狹小性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國內消費를 充足하고 남은 勞動에 의한 生産物의 剩餘分에 대한 광활한 市場의 開拓은 生産力을 提高시키고 生産物을 增加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社會의 實質所得과 富를 增加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민트는 狹小한 國內市場의 克服은 Vent-for-Surplus理論으로, 그리고 市場의 擴張으로 인한 分業增進과 生産性水準의 增加는 生産性理論으로 전개하고 있다. (註: 輸出과 成長 참조)

체너리(H.B. Chenery)는 그의 Survey論文에서 傳統的 古典學派理論은 國際貿易理論에서 緣由하지만 이 學派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分析을 近代의 成長理論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sup>(20)</sup> 즉 古典派理論은 長期的 추세와 均衡條件이 分析의 焦點이 되는데 반하여 近代成長理論은 動態的 體制內的 生産 및 消費單位들의 相互關聯性에 分析의 焦點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의 相衝性은 相異한 關心의 對象으로 인하여 相異한 假定에서 출

(17) Harberle, *op. cit.*, pp.108-109.

(18) Hla Myint, "The 'Classic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Journal*, Vol. LXVIII, No. 270, Jun. 1958, pp.317-337, reprinted in AEA, *Readings in International Economics*, Allen & Unwin, London, 1968, pp.318-338.

(19) *Ibid.*, p.319.

(20) Hollis B. Chenery, *Comparative Advantage and Development Policy*, reprinted in AEA & RES prepared, *Surveys of Economic Theory*, Vol. II, MacMillan, London, 1965, p.125.

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1)</sup>

實質費用(real cost) 대신 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의 概念을 導入하여 古典派理論을 近代化시켰던 하벌러의 理論은 完全雇傭, 完全競爭 들의 假定下에 生産要素와 生産品價格이 比較優位를 결정한다는 것이다.<sup>(22)</sup> 그러나 後進國의 開發政策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赫舍—오린(Heckscher-Ohlin)流의 比較優位論으로 이것에 의하면 完全競爭條件이 아니라 하더라도 相對的으로 豊富한 生産要素가 集約的인 商品을 輸出한다는 것인데 이 分析의 핵심적 假定은 生産要素의 各國間比較가 가능하고 生産函數는 同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물론 이러한 假定은 古典學派 理論에서는 요구되고 있지 않다.

바이너(Jacob Viner)는 傳統的 比較優位理論을 後進國經濟에 적용할 수 있으나 하는 문제를 再考한 후 適用可能性을 시인하면서 이 理論을 後進國經濟에 적용하여, 動態的으로 分析할 때에는 주로 生産可能曲線의 變質, 外部經濟의 存在, 市場價格이 機會費用을 올바르게 反映하지 않을 可能性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24)</sup> 물론 이러한 修正은 녀시의 말대로 본래 古典派理論의 要諦를 많이 제거시켜 버린 結果를 가져 왔으나<sup>(25)</sup> 이것은 반면에 市場價格과 經常機會費用만이 貿易의 決定에 충분한 變數가 되는 것이 아니라 後進國의 經濟開發問題에는 經濟成長의 過程에 관한 현실적 假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國際貿易理論이 經濟成長 특히 後進國 經濟開發에 크게 貢獻하지 못하였거나 더 나아가서는 經濟開發을 沮害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主張은 두가지 部類로 區分할 수 있다. 첫째는 체너리가 지적하듯이 經濟成長 理論가들처럼 成長理論에서 比較優位說이나 貿易의 可能性을 완전히 除去하고 動態的 側面만을 취급하여 輸出增加는 關聯部門의 發展에 공헌하고 輸入은 다만 新種商品과 高度의 技術導入을 위해 存在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經濟模型에서는 投資基準이 靜態的 比較優位概念과 相衝될 수도 있다.<sup>(26)</sup>

이러한 區分에 속하는 論文들은 대개가 貿易의 役割을 國內效果에 局限시키고 있으며 貿易을 經濟開發의 獨立變數로 取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sup>(27)</sup>

(21) *Ibid.*, p.126.

(22) G. Haberler, "Some Problems in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Journal*, No. 60, Jun. 1950, pp.223-240.

(23) B. Ohlin,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3.

(24) J. Viner, "Stability and Progress; The Poorer Countries' Problems," D. Hague ed., *Stability and Progress, the World Economy*, London, 1958. J. Viner,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53.

(25) Nurkse, "Comment" Hague ed., *op. cit.*

(26) H.B. Chenery, *op. cit.*, p.127.

(27) 소위 balanced-growth論者들; 예로 Rosenstein-Rodan,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of Eastern

둘째 部類의 批判論者들은 先進國들의 交易條件은 改善되고 後進國의 交易條件은 惡化되어 결과적으로 國際貿易은 後進國의 經濟開發을 沮害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프레비쉬(Raul Prebisch)는 中心國家들 즉 先進國들의 商品價格은 下方硬直性을 띠고 있어 製造品의 相對價格이 非對稱的으로 移動하므로 中心國家들의 成長率감소에 수반되는 總需要의 減退는 周邊國家 즉 後進國의 交易條件을 惡化시켜 결과적으로 後進國의 實質所得의 減少를 연유케 한다고 하였다.<sup>(28)</sup>

싱거(Hans Singer)는 先進國의 技術進步는 實質所得을 增大시킬 뿐만 아니라 先進國의 勞動組合의 높은 賃金鬭爭의 구실이 되어 先進國의 製造品에 대한 比例以上の 需要를 創出하는데 반하여 後進國의 技術進步는 輸出部門인 原料部門이나 食糧部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技術革新은 需要가 非彈力的인 後進國 産業에 대한 需要의 不振과 技術革新에 의한 原料需要의 減少를 수반하여 交易條件을 惡化시키게 되며 이것은 景氣變動의 樣相을 띠는 것이 아니라 構造的 樣相을 나타낸다는 것이다.<sup>(29)</sup>

뮈르달도 先進國과 後進國간의 自由貿易은 궁극적으로 後進國의 景氣沈滯인 동시에 經濟的 곤궁의 누적적 과정을 계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0)</sup>

後進國에 있어서 自由貿易이 經濟開發에 미치는 沮害的 要素로서 이상의 「交易條件의 惡化」라는 假說 이외에 마이어(Gerald M. Meier)는 國際資本移動과 「展示效果」의 沮害的 要因을 첨가시키고 있다.<sup>(31)</sup> 레빈(J.V. Levin)에 의하면 外國資本의 流入은 後進國의 輸出部門인 天然資源을 開發하는 데에만 投資되었고 國內部門의 開發에서는 除外되어 輸出部門과 非輸出部門의 二重的 經濟構造를 초래하였고 生産성이 낮은 非輸出部門에 둘러싸인 生産性

and South-Eastern Europe," *Economic Journal*, Vol. 53, Jun.-Sep. 1943, pp.205-216.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53. T. Scitovsky, "Two Concepts of External Econom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2, Apr. 1954, pp.143-152. W. A. Lewis, *Theory of Economic Growth*, Allen & Unwin, London, 1955, 특히 pp.274-83. Rosenstein-Rodan과 Nurkse는 需要측면, Scitovsky와 Lewis는 供給面에서 均衡을 강조하고 있다. 均衡成長論의 비판은 A.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68, 특히 pp.50-61.

(28) R. Prebisc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al Problems*, reprinted in *Economic Bulletin for Latin America*, 1962, pp.1-22.

(29) Hans Singer, "The Distribution of Gains between Investing and Borrowing Countries," *Papers and Proceedings of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XL, No. 2, May 1950, pp.473-485, reprinted in AEA, *Readings in International Economics*, pp.306-317, 특히 pp.311-312.

(30) G. Myrdal,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Harper & Row, New York, 1956, pp.55, 95.

(31) Gerald M. Meier,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Harper & Row, New York, 1964, p.165.

높은 輸出部門은 產業島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sup>(32)</sup> 뿐만 아니라 後進國은 要素比率의 問題를 안고 있는 바 즉 後進國의 경우 輸出部門인 工業部門의 技術水準上昇과 非工業部門의 技術水準의 저조는 前者에서는 資本集約的인 生産方法을 그리고 後者에서는 勞動集約的인 生産方法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工業部門에서는 技術係數가 固定되어 있는 반면 非工業部門에서는 이것이 可變的인 것을 의미하여 이러한 技術的 二重性(technological dualism)때문에 外國資本의 增加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의 勞動力吸收力은 人口增加率을 따르지 못하고 剩餘勞働者들은 非工業部門에서 모든 土地가 耕作되면 僞裝失業(disguised unemployment)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sup>(33)</sup>

國際的 展示效果의 저해적 要因은 先進國間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약하겠지만 하여튼 先進國의 높은 消費水準이 貿易을 통하여 經濟關係가 긴밀하여 질수록 後進國에 더 쉽게 과급되어 後進國의 消費水準을 높인다고 마이어는 주장하고 있다.<sup>(34)</sup>

이상과 같은 貿易이 後進國 經濟開發에 沮害的이라는 주장과 論議는 사실 一貫性있는 理論體系의 뒷받침이 없이 斷片的(piecemeal)이고 部分的(partial)인 分析에 불과하다. 이러한 一般論的 理論體系의 不在는 理論體系가 비교적 分명한 古典學派 理論과 크게 對照的이며 이 傳統的 理論의 批判代案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 II. 輸出과 經濟成長

### 1. 序 論

輸出이 國民經濟의 成長을 先導한다는 소위 輸出主導型經濟(export-led economy)에 관한 理論은 비록 體系적인 전개는 결여되어 있으나 여러 學者에 의하여 斷片的으로 提示 상당한 論議가 전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많은 學者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分野는 캐나다의 經濟開發을 說明하기 위하여 전개된 Staple Theory<sup>(35)</sup>, 19世紀의 國際經

(32) Jonathan V. Levin, *The Export Economie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0, pp. 4-10, 201-202, reprinted in J.D. Theberge, ed., *Economics of Trade and Development*, pp.11-34.

(33) 代表的 예는 R.S. Eckhaus, "The Factor Proportions Problem in Underdeveloped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55, pp.539-565. H. Leibenstein, "Technical Progress, the Production Function and Dualism," *Banca Nazionale de Lavore Quarterly Review*, Dec. 1960, pp.3-18. W.A. Lewis,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May 1954, pp.139-191.

(34) Gerald M. Meier, *op. cit.*, pp.173-174.

(35) Douglas C. North, "Location Theor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LXIII, Jun. 1955, pp.243-258. Melville H. Watkins, "A Staple Theory of Economic Growth,"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XXIX, May 1963, pp. 141-158. 본래 이 理論은 Harold A. Innis의 경험적 연구에서 비롯됨.



濟를 解釋하기 위하여 이 模型을 이용하였던 녀시의 理論<sup>(36)</sup>, 過剩人口를 가진 熱帶地方의 後進國 開發을 설명하기 위한 민트의 Vent-for-Surplus理論<sup>(37)</sup>, 過剩資源 대신 過剩人口를 貿易을 통하여 분출하고자 하는 루이스의 無制限勞動供給假說(unlimited labour supply)<sup>(38)</sup>, 過剩勞動經濟下에서 經濟의 開放이 경제개발에 미치는 효과와 그 정책 方向을 제시하고자 했던 웨이(J.C.H. Fei)와 란니스(G. Ranis)의 過剩勞動經濟開發의 模型<sup>(39)</sup>, 國內貯蓄과 海外貯蓄間의 非代替性에 입각하여 輸出이 成長의 隘路部門으로 등장하는 체너리, 부루노(M. Bruno), 스트라우트(A. Strout), 맨(A. Manne), 매किन(R.I. McKinnon)流의 二重갭(two-gap) 理論 등이 있다.<sup>(40)</sup>

輸出先導型經濟의 計量模型은 킨들버거(C.P. Kindleberger)<sup>(41)</sup>를 비롯하여 第2次大戰後 歐洲諸國의 成長率과 輸出實績間의 關係를 구명하기 위하여 短期模型을 작성하였던 람파루씨(A. Lamfalussy)와 베크만(W. Beckerman)의 計量模型을 예로 들 수 있다.<sup>(42)</sup>

- 
- (36) R. Nurkse,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Economic Essays*, Harvard Economic Studies, Vol. 118,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61.
- (37) H. Myint, "The 'Classic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Journal*, LXVIII, Jun. 1958, pp.317-337.
- (38) W.A. Lewis,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XXII, May 1954, pp.139-91.
- (39) John C.H. Fei and Gustav Ranis, *Development of the Labor Surplus Economy*, R. D. Irwin, Homewood, III, 1964, 특히 "Development in the Open Economy," pp.288-319.
- (40) H.B. Chenery and M. Bruno, "Development Alternatives in an Open Economy; the case of Israel," *Economic Journal*, Vol. 57, 1962, pp.79-103. M. Bruno, "A Programming Model for Israel," Irma Adelman and Erick Thorbecke, ed., *The Theory and Design of Economic Development*,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1969, pp.327-354. Alan S. Manne, "Key Sectors of the Mexican Economy, 1960-1970," A. Manne and H.M. Markowitz ed., *Studies in Process Analysis* Monograph 18, Cowles Foundation for Research in Economics, John Wiley, New York, 1963. *Ibidem*, "Key Sectors of the Mexican Economy, 1962-72," I. Adelman and E. Thorbecke ed., *The Theory and Design of Economic Development*, pp.263-285. Hollis B. Chenery and Arthur MacEwan, "Optimal Patterns of Growth and Aid; the Case of Pakistan," I. Adelman and E. Thorbecke, *op. cit.*, pp.149-178. S.B. Linder, *Trade and Trade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H.B. Chenery and A. Strout, "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66, pp.679-733. R.I. McKinnon, "Foreign Exchange Constraint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Efficient Aid Allocation," *Economic Journal*, Vol. 74, 1964, pp.388-409. J. Bhagwati, ed., *International Trade*, Penguin Modern Economics, London, 1969, pp.370-398.
- (41) 킨들버거는 輸出이 經濟를 先導하는 模型만을 提示한 것도 아니며 뚜렷한 輸出先導模型을 具體化시킨 것은 없으나 이 문제에 관한 그의 學問的 寄與는 크다. 킨들버거의 貢獻은 다음을 참조할 것. C.P. Kindleberger, *Foreign Trade and National Econom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62. *Ibidem*, *Economic Growth in France and Britain: 1851-1950*,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4. *Ibidem*, "Foreign Trade and Growth: Lessons from British Experience since 1913," *Lloyd's Bank Review*, Jul. 1962. *Ibidem*, *Economic Development*, McGraw-Hill, New York, 1965.

輸出과 成長간의 관계에 관한 이상의 斷片的 理論과 模型을 經濟學說史的 틀에 넣어 分類해 본다면 대략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天然資源과 勞動을 過剩의 生産要素로 分類할 때 「古典學派」의 接近法은 兩面에서 接近할 수 있다.<sup>(42)</sup> Staple理論과 루이스流의 過剩勞動模型이 貿易의 측면에서 經濟成長의 문제를 接近하였다고 한다면 웨이와 래니스의 過剩勞動經濟模型은 經濟開發의 측면에서 經濟의 開放을 다루었다. 輸出의 動態的 效果도 매우 중요한 側面을 이루고 있다.

<表 1> 輸出과 成長: 理論의 展開

接近法\資源	天 然 資 源	勞 動
「古典學派」	Staple理論(North등)	無制限勞動供給論(Lewis)
		Vent-for-Surplus(Myint) 過剩勞動經濟開放(Fei & Ranis)
		{ 間接效果(Mill) { 生産性理論(Myint)
「新古典學派」	{ 핵서-오린流의 모형; { 완전고용(Ranis와 Fei 批判; Jorgenson) { 間接效果無視(Haberler의 理由)	
「現代」 (헤로드-도마型 傳統에 따른 접근법)	{ two-gap理論(Chenery, Bruno, Strout 등) { 外換制約(McKinnon) { 開放經濟成長모형(Johnson 등)	

「新古典學派」의 接近法에서는 完全雇傭을 假定하여 經濟成長은 人口의 增加, 資本스톡의 增加 그리고 技術의 革新에 의하여 漸次的으로 變化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外生的 變數에 의한 成長率의 急上向(upward shift)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들이 輸出과 成長의 관계에 공헌한 것은 비교적 적다 할 것이다.

「現代」의 혹은 「케인지안」의 接近法에서는 國內과 海外貯蓄間的 非代替性的의 假定과 레온

(42) A. Lamfalussy, "Contribution à un theorie de la croissance en economie ouverte," *Recherches economiques de Louvain*, Vol. XXIX, No. 8, 1963. *Ibidem*, *The United Kingdom and the Six: An Essay on Economic Growth in Western Europe*, R.D. Irwin; Homewood III, 1963. W. Beckerman, "Projecting Europe's Growth," *Economic Journal*, Vol. LXXII, Dec. 1962. B. Balassa, "Some Observations on Mr. Beckerman's 'Export Propelled' Growth Model," *Economic Journal*, LXXIII, Dec. 1963. W. Beckerman, "Professor Balassa's Comments on my 'Export-Propelled' Growth Model; A Rebuttal," *Economic Journal*, Vol. LXXIV, Sep. 1964. B. Balassa, "Some Observations on Mr. Beckerman's Export-Propelled Growth Model: A Further Note," *Economic Journal*, Vol. LXXIV, Sep. 1964.

(43) 本論文에서 古典學派의 접근법은 엄격히 規定한다면 스미드와 밀流의 接近法을 의미하며 리카아도流의 靜態的 分析方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트가 그의 古典的 論文 「國際貿易의 <古典學派理論>과 開發途上國」에서 引用부호〈 〉를 사용하여 스미드의 理論을 소개했던 것과 같은 精神에 입각하여 여기에서도 引用부호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新古典學派」나 「現代」의 접근법의 경우도 類似하다는 것을 부언하고 싶다.

티에프(Leontief)流의 固定係數模型을 이용하여 헤로드—도마식의 傳統에 따라 輸出의 不振이 經濟成長의 隘路부분으로 나타날 때의 諸問題를 다루고 있다. 즉 「古典學派」의 接近法이 輸出과 經濟成長의 관계에 대하여 積極的 接近法이었다면 「現代」의 解釋은 輸出增大로 隘路部門을 除去하여 經濟成長에 公헌하는 消極的 接近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後者의 경우는 輸出의 增大로, 다른 條件이 같다고 할 때, 外債의 負擔을 減少시킬 수도 있으며 새로운 外債의 起債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國內生産能力의 擴張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2. 「古典學派」의 接近

Staple理論과 Vent-for-Surplus理論의 骨子は 經濟的 價値의 使用을 위한 代案이 없는 資源이 特定時期에 特定場所에서 發掘되어 輸出될 때 초래되는 經濟成長에 관한 理論이다. 이와 같은 資源의 剩餘는 市場機構의 失敗에 의하여 緣由되었다기 보다 오히려 나라의 經濟組織의 固有한 一面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Staple理論을 普遍化하는데 공헌이 컸던 케이브스(R.E. Caves)는 이 理論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sup>(44)</sup> 後進國에서 스스로 消費에 충당하고도 남는 「剩餘」天然資源이 發見되었다든가 혹은 아직까지 모르던 經濟的 有用性이 발견되었다고 假定하자. 世界를 經濟가 完熟한 先進地域(甲)과 未開發地域(乙)으로 區分하여 甲은 모든 종류의 財貨를 生産하며, 資本量과 勞動은 固定되었으며, 資本은 모든 生産過程間에 移轉이 可能한 同質的 資本이고, 모든 要素가 完全히 雇傭되고 있다고 假定하자. 이 때 生産에 資本과 勞動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資源을 필요로 하는 資源集約的 財貨群이 있다 하고 이것을 Staples라 하자. 이때에 財貨生産에 필요한 資源을  $R_i$ 라고 하자. 資源의 質과 量은 多樣하며  $R_i$ 를 이용하는데 限界的 埋藏量인  $i$ 번째의 資源에는 地代(rent)가 없을 것이나  $i$ 번째 資源 이전의 資源에는 리카아도流의 地代가 歸屬될 것이다. 完全均衡의 條件下에서는 각 Staple의 價格은 가장 적은 資源을 이용하여 한 單位의 財貨를 生産하는 데 필요한 資本과 勞動에 지급되는 所得과 같을 것이다. 물론 製造品生産에 勞動과 資本을 필요로 하며 Staple도 投入으로 이

(44) Richard E. Caves, "Vent for Surplus Models of Trade and Growth," R.E. Caves, H.G. Johnson and P.B. Kenen, ed., *Trade, Growth and Balance of Payments*, North-Holland Pub. Co., Amsterdam, 1966, 특히 pp.97-104. R.E. Caves, "Export-led Growth and the New Economic History," J.N. Bhagwati, R.W. Jones, R.A. Mundell, and J. Vanelk, ed., *Trade, Balance of Payments and Growth: Papers in International Economics in Honor of Charles P. Kindleberger*, North-Holland Pub. Co., Amsterdam, 1971, pp.403-442. 특히 參考文獻(pp.439-442)이 매우 廣範圍하여 이 分野研究에 좋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케이브스의 Staple理論 해석은 Bensusan-Butt의 분석방법을 많이 원용하고 있다. D.M. Bensusan-Butt, "A Model of Trade and Accumu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XLIV, Sep. 1954, pp.511-29.

용될 것이나 Staple의 價格은 製品均衡價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假定한다.

乙地域은 아직은 空閑地이며 天然資源의 賦存狀態도 알 수 없다고 假定하자. 乙地域에서도 甲地域에서와 같이 生産活動이 開始되고 生産投入이 같다고 假定할 때 乙에서는 小規模 生産이므로 收穫遞增이 作用하는 生産函數의 범위내에서 生産이 가능하며 따라서 生産性이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乙地域에서는 天然資源이 發見될 때까지 乙地域에서 生産의 實質費用上的 利得이 없으므로 生産要素의 移動도 없으며 國際貿易도 開始되지 않게 된다. 물론 이 때 輸送費나 要素移轉費 그리고 貿易의 障礙가 없다고 假定하고 있으나, 이 制約을 풀다 하더라도 價格差에 反映된다면 分析上 差異는 없을 것이다.

乙地域에서 天然資源  $R_1$ 의 豊富한 埋藏量이 發見되었다고 假定한다면 이제 Staple 1의 生産에 必要한 資源  $R_1$ 를 開發하기 위하여 勞動과 資本이 甲地域으로부터 乙地域으로 移動하게 될 것이다. 이제 甲과 乙은 貿易을 開始하여 甲은 Staple 1 財貨를 輸入하고 2, ...,  $n$ , 財貨를 輸出할 것이다.  $R_1$ 資源의 開發은 계속  $R_1$ 資源의 埋藏量을 더 발견하게 되어  $R_1$ 을 처음 발견한 埋藏量의 所有者에게 1單位  $R_1$ 으로 부터의 所得은 減少하고 財貨(1)의 價格  $P_1$ 은 下落하며 甲地域의 限界的 埋藏量을 가졌던  $R_1$ 資源은 利潤이 減少하여 탄광의 문을 닫게 되며 다른 資源의 所有者들에게 歸屬하던 地代도 遞減하게 된다.

乙地域에서의 「剩餘」資源의 開發過程은 乙地域의 幼稚産業을 成長시키며 이 때의 成長率은 資本과 勞動의 國際間 移動을 制約하는 要因에 영향을 받게 된다. 國際的으로 甲財貨市場에서 均衡이 이루어지면 乙地域에서의 成長은 鈍化되어 다시 零으로 가까와지나 다른 資源( $R_2 \dots R_n$ )들의 埋藏量이 발견되면 다시  $R_1$ 과 같은 역할로 다시 乙地域의 經濟成長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乙地域의 經濟成長은 乙地域의 總所得을 增加시켜주며 資源集約的 財貨의 生産費를 減少시켜 甲과 乙 兩地域의 個人當所得을 增加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兩地域의 生産과 貿易은 계속 兩極化狀態를 벗어나지 못하여 甲지역은 계속 製造品  $i+1, \dots, n$ , 를 生産하고 乙地域으로 부터 Staples  $1, \dots, i$ , 을 輸入하여 消費하는 比重이 점차로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過程에서 乙地域은 天然資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製造品( $N, \dots, Z$ )도 輸入하기 보다 오히려 經濟的으로 生産하게 될 것이다. 輸送費가 무한히 큰 서어비스는 輸出 Staple 産業이 일어날 때와 같이 生成될 것이나 輸送費가 적지 않을 製造品도 乙地域에서 生産이 되게 될 것이다.

天然資源  $R_i$ 를 발견하기 위한 努力은,  $i$ 번째 Staple에 대한 世界的 수요가 增加(shift)되어 일반적으로  $R_i$ 의 地代를 높이고 甲地域에서도 低質의  $R_i$ 의 開發이 더욱 試圖될 때 나타날

것이다. 이와같은 需要의 急增이 天然資源을 開發시키는 役割을 하고 輸出先導型 經濟인 乙國의 所得水準을 올려준다는 사실은 逆으로 國際需要의 激減은 成長의 축매를 반대로 遞減시킬 可能性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때 이 Staple理論에 의하면 乙地域은 成長初期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후부터 그 영향은 遞減될 것이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때는 이미 資源集約의 이 아닌 製造業部門  $F$ 도 存在하게 될 것이며  $i$ 產品 生産에서 풀려 나온 勞動과 資本도 輸送費와 其他費用이 存在하므로 甲地域으로 移動하지 않고  $F$ 財生産에 參與할 것이다.

이러한 Staple模型은 乙地域에서의 經濟成長(總所得成長)과 兩地域에서의 總所得과 個人當所得의 成長率이 資源發見의 時點과 生産要素의 移動과 吸收에 의하여 決定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成長過程은 人口, 資本스톡, 勞動生産性 및 技術의 漸進的 進步에 의한 소위 新古典學派의 成長<sup>(45)</sup>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新古典的 成長은 長期的으로 安定性이 있으므로 乙地域에서 成長率의 急增現象은 새로운 資源의 발견에 의하여 유도된 輸出先導型 成長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Staple流의 開發模型은 캐나다의 經濟成長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다. 캐나다의 資源은 水産에서 비롯하여 가죽, 木材, 우유類, 곡식, 펄프, 종이, 광석, 石油 등으로 擴大되었고 이러한 資源의 開發은 캐나다의 經濟成長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Staple模型은 그 후 資源이 豊富한 여러 나라에 적용되어 그들의 經濟史를 理解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왔다.<sup>(46)</sup>

Vent-for-Surplus理論은 민트가 아담 스미드의 國富論중에서 (本文 1.2참조) 國際貿易이 國內市場의 狹小性을 극복하고 國內에서 生産되는 產品중에서 必要 이상의 剩餘生産의 出口를 마련하여 준다는 사실과 市場이 擴大됨에 따라 國際貿易은 分業을 촉진시키고 生産性水準을 提高시켜 준다는 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開發한 것이다.<sup>(47)</sup>

(45) J.E. Meade, *A Neoclassical Theory of Economic Growth*, Allen & Unwin, London, 1965, 특히 "Three Determinants of the Rate of Economic Growth," pp.8-18.

(46) Douglas C. North, *The Economic Growth of the United States, 1790-1860*,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61. R.E. Baldwin, *Economic Development and Export Growth: A Study of Northern Rhodesia 1920-196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66. E. Gunewardena, *External Trade and the Economic Structure of Ceylon, 1900-1955*, Colombo, Central Bank, 1965. C.W. Reynolds, "Development Problems of an Export Economy: The Case of Chile and Copper," M. Mamalakis and C.W. Reynolds, ed., *Essays in the Chilean Economy*, Irwin, Homewood, 1965, pp.203-398. I.R. Woods, "Some Aspects of South Africa's Foreign Trade in Relation to Her Aggregate Income, 1910-1954,"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XXVI, Jun. 1958, pp.136-151. C.G.F. Simkin, *The Instability of Dependent Economy: Economic Fluctuations in New Zealand 1840-1914*,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51.

(47) Hla Myint, "The 'Classic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Journal*, Jun. 1958, pp.317-337. 민트理論의 再解釋에 관해서는 Richard E. Caves, "Vent-for-Surplus Models of Trade and Growth," R.E. Caves, H.G. Johnson & P.B. Kenen ed., *Trade, Growth and the Balance of Payments*, North-Holland Pub. Co., Amsterdam, 1966.

민트는 前者를 Vent-for-Surplus理論으로 그리고 後者를 生産性理論으로 설명하고 있다. 生産性理論은 靜態的 比較優位理論과 달리 貿易의 動態的 측면을 파악하여 이것이 市場을 擴大시켜 分業을 촉진시키고 技術革新을 일으키며 貿易에 종사하는 國家가 收穫遞增의 生産을 可能토록 하여 經濟開發을 돕는다는 理論이다.<sup>(48)</sup> 민트는 이것이 바로 밀이 말하는 「間接的 效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生産性理論에 의하면 스미드流 特化過程은 輸出需要에 副應하기 위하여 一國의 生産構造가 계속 適應되고 再編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렇게 굳어진 輸出經濟는 交易條件의 變化에 더욱 민감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스미드의 生産性理論은 自由貿易主義의 범주를 넘어서 輸出促進(export drive)의 主張을 낳게 하였다. 즉 貿易이 生産性を 提高시키고 經濟開發을 촉진시킨다면 政府는 貿易障壁의 철거라는 中立의이고 소극적인 政策을 止揚하고 좀더 積極的으로 國際貿易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의 일부는 韓國經濟開發과 輸出振興政策에 관련이 크게 있다.)

민트는 英國의 植民地國家들의 成長이 매우 急速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미드流의 分業과 特化, 그리고 生産性的 增加와 연결된 결과로만 돌리지는 않고 있다. 민트는 그 이유로서 첫째 勞働이 傳統部門(subsistence sector)에서 鑛山과 플란테이션(plantations)으로 移轉됨에 따라 生産성이 한꺼번에(once-for-all) 크게 增加하였고, 둘째 勞働時間이 연장되고 傳統的 經濟部門의 유희노동력보다 賃金이 높은 勞働力의 比重이 커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勞働力의 移轉은 資本係數가 높고 經營이 近代化된 近代部門(modern sector)에서 生産성을 급격히 提高시켰으나 그 移轉된 勞働이 特化되고 技術을 얻어 계속 生産성이 增加된 것이 아니라 近代部門에 雇傭될 때 한변만 生産성이 增加되었다. 이러한 저렴한 勞働의 供給은 經營陣의 資本支出을 最低로 減少시켰고 勞働力의 供給이 끝나면 주어진 勞働力을 節約하여 生産성과 技術을 높일 政策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다른 地域으로부터 이러한 勞働力의 供給源을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生産要素間의 固定比率는 계속적인 勞働力의 供給이 가능한 한 維持되었다. 비록 勞働뿐만 아니라 土地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東南亞의 경우에는 土地生産性的 增加없이 土地의 耕作面積을 넓혀 輸出用 農產品의 生産을 增加시키는 現象을 유발시켰다. 아담 스미드流의 特化에 의한 生産性的 漸增은 쉽게 달성되지 못하였다.

(48) Allyn Young,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Progress," *Economic Journal*, Dec. 1928, pp.527-542.

민트는 Vent-for-Surplus 理論을 傳統的 比較優位理論과 두가지 측면에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傳統的 比較優位說은 甲國의 資源은 固定되어 있고 貿易을 開始하기 전에 모든 資源이 완전히 雇傭되어 있는 것을 假定하고 있으므로 이러할 때 貿易의 機能은 새로운 國際的 相對價格에 따라 內需와 輸出用 生産間에 資源을 더 效率的으로 再配分하는 데 있지만 Vent-for-Surplus는 國際貿易을 開始하는 甲國은 國內需要보다 過剩한 生産能力을 소유하고 있어 이 때에 貿易의 機能은 資源의 再配分보다는 貿易이 없었다면 사용되지 않았을 剩餘資源產品에 대한 有效需要를 創出하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過剩生産施設이란 輸出品에 대한 非彈力的 國內需要와 資源의 非流動性 및 資源의 特定目的性을 의미한다. 그러나 傳統的 比較優位理論에서는 要素의 完全한 流動性을 假定하므로 비록 實質所得은 낮다 하더라도 모든 資源은 완전히 雇傭되어 過剩資源의 存在가 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이 Vent-for-Surplus理論을 傳統的 比較優位理論과 差別지우려는 민트의 努力에 대하여 하벌리는 Vent-for-Surplus는 國內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財貨를 輸出하는 나라를 예로 삼은 比較優位の 극단적 差異를 나타내 주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理論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9)</sup>

물론 민트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미드流의 Vent-for-Surplus理論은 重商主義理論의 잔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論議되어야 할 것은 어떻게 國際貿易이 開始되기 이전에 甲國內에 過剩生産施設의 存在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天然資源, 생산 기술, 취향과 人口 등이 外生的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때 이와 같이 貿易開始 이전의 自給自足的 經濟는 生産 및 消費能力間 不均衡이 尙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헉서-오린流의 國際貿易理論에서는 生産要素의 賦存資源間의 不均衡은 要素價格의 調整에 의하여 均衡을 이루게 될 것으로 土地가 豊富하고 勞動이 부족한 經濟에서는 賃金과 勞動集約的 商品의 價格이 높고 地代와 土地集約的 商品의 價格은 낮을 것이다. 이러할 때는 國際貿易이 開始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過剩生産資源은 없을 것이며 國際貿易이 開始되면 賦存資源이 많은 土地集約的 財貨를 輸出하게 되고 이 때 필요한 勞動은 國內消費 生産에 종사하는 勞動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價格構造의 彈力的 運營과 經濟組織이 잘 되어 있는 自給自足體制下의 經濟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後進國의 경우에 價格構造의 非彈力性, 특히 貨幣經濟의 未熟은 오린流의 貿易理論의 適用範圍를 많이 制限하게 된다. 따라서 資源, 技術, 趣向, 人口 등 사이의 不均衡은 過剩

(49) Gottfried Haberler,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reprinted in J. D. Theberge, ed., *Economics of Trade and Development*, Wiley & Sons, New York, 1968, p.107.

生産施設을 연유시키게 된다. 아담 스미드流의 過剩生産能力的 概念이란 過剩土地 뿐만 아니라 過剩勞動과 過剩土地의 複合的 概念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過剩勞動은 非生産的 勞動의 概念과 關聯이 있어 過剩人口國家에서 耕作地의 不足으로 나타나는 僞裝失業 現象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민트는 스미드의 Vent-for-Surplus 理論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은 天然資源에 비하여 人口가 희소했던 後進國經濟에 잘 적용된다고 示唆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민트의 Vent-for-Surplus理論은 Staple理論과 類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트가 展開한 Vent-for-Surplus理論에서 희박한 人口를 가진 經濟에서 噴出될 部門은 資源이라고 시사한 것은 다른 한편 資源이 희박하고 人口가 많은 乙國의 경우 噴出될 부분은 人口라는 것을 의미한다. 無制限한 人口의 存在, 혹은 無制限의 勞動供給下에서의 經濟開發의 問題는 루이스에 의하여 전개되었다.<sup>(50)</sup>

루이스는 勞動의 限界生産이 零인 農業(subsistence)部門에서도 家計內에 所得을 分割하는 慣習으로 인하여 賃金이 勞動의 平均生産性과 같은 國民經濟를 대상으로 하여 過剩勞動의 문제와 經濟開發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經濟에서는 農業部門에서 상당한 勞動력이 이 部門밖으로 移動하더라도 平均生産은 增加하겠지만 限界生産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루이스는 古典學派의 전통에 따라 最低 生存可能한 賃金水準에서 無制限의 勞動供給이 가능하다는 것을 假定하였다. 이것은 勞動의 供給이 無制限이 아니라는 新古典學派의 假定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예로 丙國內에 루이스가 假定하듯이 産業部門(capitalist sector)과 農業部門이 있다고 假定하자. 이 때에 産業部門(C)은 近代部門에 속하여  $1, \dots, n$ 의 產品을 생산하며 農業部門(S)은 傳統部門으로 資本소득은 별로 없고 勞動력이 풍부하다고 假定하자. 勞動력이 풍부한 이런 經濟에서는 最低生存賃金(subsistence wage)에서 勞動의 供給이 가능하다.

C部門에서 資本形成이 이루어지면서 C部門은 S部門으로부터 勞動을 흡수하기 시작하며 C部門에서의 資本形成과 技術進步는 賃金を 上昇시키지 않고 國民所得에서 利潤의 占有率만을 높여줄 것이다.

勞動過剩經濟에서 貯蓄率이 낮은 것은 國民所得에 접하는 利潤의 비중낮기 때문이며 C部門이 팽창함에 따라 利潤이 增加하고 投資의 比率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資本蓄積이 人口

(50) W.A. Lewis,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XXII, May 1954, pp.139-91, reprinted in A.N. Agarwala and S.P. Singh,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69, pp.400-449. *Ibidem*, "Unlimited Labour, Further Notes," *Manchester School*, XXVI, Jan. 1958, pp.1-32.



增加率을 앞지르게 되면 過剩勞動力이 완전히 흡수되고 賃金은 生存水準 이상으로 上昇하기 시작 할 것이다. 이 때 資本輸出은 國內資本形成過程을 鈍化시키고 國內賃金を 낮게 한다. 반대로 外國資本의 導入은 資本이 消費用 財貨의 生産性を 높이지 않는 한 過剩勞動力이 尙存하는 國家에서는 實質賃金を 上昇시키지 않을 것이다.

전과 같이 甲國은 先進國으로  $1, \dots, i-1, i, \dots, n$ 財를 生産하며 丙國은 勞動力이 豊富한 後進國이라고 假定하자. 이러할 때 丙國의 勞動力은 甲國으로 移動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이러한 經濟與件下에서도 丙國은  $S$ 部門에서 生産活動이 계속되며  $C$ 部門에서도  $i \dots n$ 財貨를 生産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C$ 部門의 生産品은 國際貿易의 對象이 되지 못하고 國內消費用으로 充當될 뿐이다. 그러나 丙國의 成長過程에서 製造品  $i$ 는 甲國에서 보다 적은 費用으로 生産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假定하자. 이것은 丙國의 저렴한 賃金과 必要한 資本施設費의 總計가 甲國의 總費用보다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할 때 資本이 甲國으로 부터 丙國으로 移動하며 貿易이 개시될 것이다. 즉 이제 丙國은  $i$ 財를 甲國에 輸出하며  $i$ 財 이외의 財貨를 輸入할 것이다. 丙國의  $i$ 財 生産增大와 이러한 貿易패턴은 甲國에서  $i$ 財 生産에 종사하던 生産要素가 다른 財貨生産에 投入되도록 長期的 均衡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丙國에서  $i$ 産業의 팽창은 이 經濟成長에 어느 정도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는  $S$ 部門으로부터 賃金の 引上없이 얼마만한 勞動力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과, 國際收支의 制約下에서 資本이 甲國에서부터 丙國으로의 移動可能性, 丙國에서  $i$ 財 生産에 필요한 勞動力의 熟練度を 얼마나 빨리 提高시킬 수 있는가에 그 관건은 달려 있을 것이다.

$i$ 産業生産品의 輸出은 經濟成長을 촉진시킬 것이지만 이러한 過程은  $i$ 財貨 뿐만 아니라  $i+1, \dots, n$ 財의 生産輸出에까지 擴大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財貨의 輸出은 Staple 理論에서 새로운 資源의 발견과 발견된 資源集約的 產品의 輸出이 成長을 촉진시키는 것과 類似한 模型이라는 것이다.

過剩勞動力經濟에서 成長이 鈍化되는 것은 이와 같은 過剩勞動力이 減少되어 丙國內  $S$ 部門에서 勞動力流出로 限界生産성이 最低生存賃金 이상으로 上昇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丙國의 經濟成長은 勞動力의 賃金引上을 수반하며 이러한 賃金上昇은 成長率에 영향을 미치게되며 이 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過剩勞動力의 噴出口로서 輸出이 成長에 미치는 効果는 중식된 바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過剩勞動力經濟에 있어서 貿易의 役割은 韓이와 래니스에 의해서 더 명쾌하게

展開되었다. (51) 웨이와 레니스는 過剩勞動型 後進國經濟는 制度的으로 賃金이 결정되는 停滯的 農業部門과 要素市場에서 競爭의 條件이 支配하는 成長的 産業部門으로 構成된 二重 構造經濟라고 규정하고 있다.

上述한 二重經濟에서는 人口增加의 壓力으로 勞動은 稀少한 生産要素가 아니며 오히려 貯蓄率이 낮기 때문에 資本이 희소한 生産要素이다. 이런 經濟狀況下에서 經濟開發의 努力이 成功하려면 맬더스의 人口의 壓迫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農業部門에서 계속적으로 産業部門으로 勞動이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2)

이러할 때 二重經濟가 開放되면 輸出部門은 資源과 특별히 연관이 있는 財貨, 예를 들어 石油, 茶, 原綿 등이 主軸이 되며 (著者註; Staple 理論과 類似함) 이러한 輸出部門을 돕기 위하여 社會間接資本과 財政 및 商業制度가 開發되어 이 部門은 enclaves로서 動態的으로 급속히 成長하게 된다.

이와 같은 enclave 經濟는 開放經濟가 深化되면서 점차로 農業部門의 縮小와 産業部門의 擴大를 수반하게 된다. 즉 enclave 經濟는 이제까지 등한시되었던 國內經濟의 開發에서 成長의 계기를 포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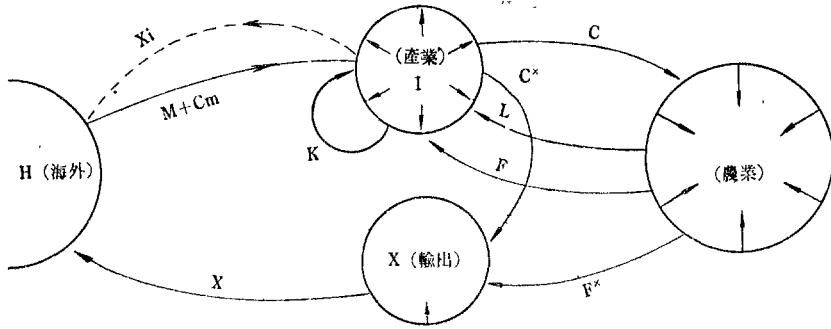
이러한 때 後進國은 後發國(latecomer)으로서 가장 큰 利得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輸出 産業은 새로운 生産可能曲線上에서 操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國內生産要素가 輸入된 資本財 및 原資材와 配合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後進國은 이미 開發된 外國의 技術을 비교적 低廉한 費用으로 後進國開發戰略과 資源構成에 알맞게 導入할 수 있고 貿易을 통하여 國內産業의 팽창에 필요한 海外貯蓄을 가능케 하며 輸出産業自體가 國內産業部門의 팽창에 필요한 貯蓄의 源泉이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웨이와 레니스가 다음과 같은 圖表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圖表1에서  $F$ 는 海外部門,  $X$ 는 輸出部門,  $I$ 는 國內産業部門,  $A$ 는 農業部門을 表示하며 화살표( $\rightarrow$ )는 팽창( $I$ ) 및 수축( $A$ )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L$ 는 勞動,  $K$ 는 産業部門에서 生成된 利潤에서 貯蓄된 후 資本財의 蓄積,  $F$ 는 주로 食糧 및 原料品の 형태로 農業部門에서 産業部門으로 提供된 剩餘農産物,  $C$ 는 産業部門에서 生産된 消費財와 資本財,  $C^*$ 와  $F^*$ 는 輸出部門에 종사하는 勞動者들에게 供給되는 消費財와 食糧, 이와 같이 하여 生産된 資源集約的 輸出部門의 產出은 全量 輸出( $X$ )된다.  $M$ 는 原料輸入,  $C_m$ 는 消費財輸入을

(51) J.C. Fei and G. Ranis, *Development of the Labour Surplus Economy: Theory and Policy*,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1964. 특히 Chapter 8, "Development in the Open Economy," pp.288-319.

(52) *Ibid.*, p.3.

圖表 1. 開放經濟下 開發指向의 二重經濟에 있어서의 資源配分



資料 : J. Fei & G. Ranis, *op. cit.*, p. 292.

나타내며 이것은 産業部門에서 필요하다고 假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模型에서는 X部門의 역할이 A部門의 역할과 비슷해진다. 이러한 때 X部門의 輸出을 增進시키는 것은 이 部門의 輸出이 너무 資源集約的이며 勞動이나 資本의 寄與度는 너무도 낮고 이러한 財貨에 대한 長期的 世界需要展望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A나 특히 I部門에서 輸出을 增大시키려 한다면 그 展望은 비교적 밝다. 특히 産業部門(I)에서의 輸出增大는 勞動과 資本의 生産性을 增加시켜 工產品을 價格과 質面에서 國際競爭力이 充分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過剩勞動經濟下에서는 自然히 勞動集約的 產品을 輸出하고 特定消費財와 資本財는 輸入代替현상도 유발할 수 있다.

물론 工產品(I) 輸出促進을 통하여 經濟開發을 이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웨이와 레니스는 여기에 대하여 비교적 회의적이다. 그들은 이러한 輸出主導的 接近法이 成長과 貿易의 動態的 側面에서 수급은 가나 傳統的 農業部門의 開發을 해결하지 않고 産業部門만의 成長은 一種의 「逃避主義」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즉 그들은 經濟를 開放化시키는 것이 農業部門에 活力素를 불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主張하고 있다. 閉鎖經濟下에서 農業部門의 침체下에 급속한 工業化의 추진이 결과적으로 剩餘農產物의 斷切로 投資基金을 고갈시키며 工業部門의 交易條件이 惡化되어 賃金이 上昇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과 같이 開放經濟下에서 이러한 메카니즘이 갑자기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貿易 특히 輸出은 二重構造의 經濟下에서는 로버트슨이 말하는 成長의 原動力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A部門이 停滯化하면 國民經濟內의 可用貯蓄基金이 減少하고 食糧不足이 유발시키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따르고 곧 國際收支가 惡化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經濟下에서 貿易은 開發過程을 원활히 하여 주는 역할을 할 뿐

이라는 것이다.

### 3. 「新古典學派」의 接近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이나 過剩勞動資源의 開發에 있어서 新古典學派의 貢獻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新古典學派理論의 바탕을 이루는 假定이 이러한 공헌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이 最低生存賃金水準에서 無制限의 勞動供給을 假定하고 이에 따라 經濟가 어떻게 成長하는가를 규명하였고 이런 경우 資本蓄積이 바로 生産의 原動力인 것을 규명하였으며 이것은 곧바로 所得分配에 관한 분석으로 이해되었다. 즉 古典學派模型에서 所得分配과 經濟成長은 동시에 결정되었으며 財貨의 相對價格은 부수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이다.<sup>(53)</sup>

그러나 新古典學派模型에서는 勞動의 無制限한 供給은 중시되었고 相對價格과 所得分配은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經濟成長에 관한 분석은 어렵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新古典學派의 假定은 19世紀末의 西歐經濟에 알맞는 假定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古典的 의미의 勞動供給은 중시되었고 經濟成長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듯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新古典學派들은 勞動價值說에 입각한 리카아도流 貿易理論의 분석을 止揚하고 生産要素가 生産可能性을 制約하는 模型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生産要素는 항상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헤셔—오린流의 分析은 新古典學派流의 分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헤셔—오린定理은 각국이 賦存資源集約的 財貨生産에 特化하여 豊富한 要素集約的 財貨를 輸出하고 國內에 빈약한 要素集約的 財貨를 輸入하는 무역의 패턴을 설명하였으나, 이 模型은 이러한 賦存資源의 完全稼動과 完全雇傭을 假定하고 이것에 의하여 生産可能曲線의 형태가 결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賦存資源의 새로운 발견에 의한 生産可能曲線의 擴張보다는 기존 生産可能曲線의 범주내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新古典學派가 밀이 운위하던 輸出의 「간접적 利得」이나 민트가 얘기하는 生産性理論을 분석의 對象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하벌러가 단편적으로 論評한 소위 「間接的 效果分析」이란 數學的 方法으로 쉽게 정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54)</sup> 라는 理由 이외에도 다른 가능성

(53) W.A. Lewis,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Agarwala and Singh, ed.,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p.400.

(54) Dale Jorgenson, "The Development of a Dual Economy," *Economic Journal*, LXXI, 1961, pp. 309-311. *Ibidem*, "Testing Alternative Theories of the Development of a Dual Economy," Irma Adelman and E. Thorbecke, ed., *The Theory and Design of Economic Development*, pp.45-60.

들은 없었을까?

그러나 민트는 新古典學派가 經濟成長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貿易의 教育的 效果(educative effect)를 實習中 習得(learning by doing) 理論으로 體系化하였다고 주장하고도 있다.<sup>(55)</sup> 물론 教育的 效果는 리스트(Friedrich List)가 保護主義論爭을 전개하면서 製造產業과 연결시킨 개념이지만<sup>(56)</sup> 開放經濟에 적용시킬 때 上述의 間接的 效果와 크게 틀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조젠슨(Dale W. Jorgenson)은 二重經濟開發의 諸理論을 테스트하면서 「新古典學派」의 接近法을 古典學派와 區別하고 있다. 즉 「新古典學派」의 接近法에서는 農業部門에서의 限界生産性は 항상 零보다 크며 따라서 勞動은 결코 剩餘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古典學派」의 해석은 農業部門에서 僞裝失業이 存續하는 한 賃金이 制度的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新古典學派」의 해석은 賃金率은 可變的이며 低所得水準에서는 人口增加率이 所得水準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젠슨도 지적한 바와 같이 「古典學派」의 해석과 「新古典學派」의 해석의 差異는 僞裝失業이 存在하는 동안에만 政策的 含蓄성이 다를 뿐이며 일단 剩餘勞動力이 완전히 經濟내에 흡수되면 兩派 해석의 差異는 없어지게 된다. 조젠슨은 루이스의 無制限 勞動供給理論과 웨이와 래니스의 過剩勞動經濟開發에 관한 理論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내세운 實質賃金の 不變과 僞裝失業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農業部門의 勞動力의 絶對的 減退는 실증적으로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57)</sup> 뿐만 아니라 勞動生産性的 不變, 成長率과 雇傭率의 古典學派에서 주장하는 增加, 그리고 資本蓄積率의 增加와 資本係數의 下落 등은 모두 統計資料와 비교할 때 옳지 않다는 것이다. 日本,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南部 유럽, 인도, 中國, 東南亞 等地에서 나타난 僞裝失業의 存在는 二重經濟의 開發이 「古典學派」의 해석보다는 「新古典學派」의 해석에 의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조젠슨의 見解이다.<sup>(58)</sup>

이와 같은 經濟現象에 대한 「新古典學派」적 해석은 幼稚產業의 保護를 둘러싸고도 다른 接近法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新古典學派」들은 初期단계에서 生産費가 높을 때 幼稚產業에 제공하는 保護조치는 임시조치이며 일단 國內市場은 國際市場에서 外國生産者와 同等

(55) H. Myint, "International Trade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P.A. Samuelson, ed.,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MacMillan Co., New York, 1969, p.26.

(56) F. List, *The Nation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translated by S.S. Lloyd), Longmans, London, 1922, pp.108, 113, 161.

(57) D. Jorgenson, pp.59-60.

(58) 조젠슨의 分析方法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조. Stephen A. Marglin, "Comment," Adelman & Thorbecke, *op. cit.*, pp.60-65.

하게 競爭이 가능해지면 이러한 보호조치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新古典學派」의 論者들은 일단 幼稚產業이 習得과 經驗을 통하여 성취한 費用의 遞減은 市場需要가 減退하는 경우에도 逆轉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市場需要의 減退時 規模의 經濟에서 성취하였던 遞減하는 單位生産費用이 다시 上昇하는 경우와 틀린다. 이들은 또한 保護는 특정산업에 費用 혹은 差等價格의 혜택을 주는 選別的 方法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國內生産企業體를 保護하는 것은 어느 企業도 保護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9)</sup>

#### 4. 「現代」的 (「케인지안」)의 접근

後進國 開發에 있어서 輸出의 役割에 관한 「古典學派」적 해석은 주로 過剩資源 혹은 過剩勞動을 前提로 하여 접근하였으며 「新古典學派」에서는 完全雇傭을 가정하여 「古典學派」에서와 같이 輸出에 의한 成長率의 一時的 上向은 不可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두 學派의 共通의 특징은 輸出을 통한 海外貯蓄의 增大는 國內貯蓄을 보완하는 效果만을 갖는다고 가정하는데 있다.<sup>(60)</sup> 그러나 「現代」的 해석에 따르면, 經濟成長에 필요한 많은 財貨가 産業發展의 初期段階에서는 國內에서 生産 또는 調達되지 못하므로 外國援助나 外國投資는 이러한 財貨의 調達이 外國으로부터 필요하고 이것이 隘路部門으로 작용할 때 成長率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輸出增大가 이러한 隘路의 打開策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內에서 生産되지 못하는 財貨가 經濟成長에 미치는 効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비록 國內貯蓄에 비교할 때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못하지만 輸出을 통한 海外貯蓄의 增大는 海外部門의 隘路를 해결하여 經濟開發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現代」的 접근법에 의한 輸出의 역할에 대한 諸解釋은 체너리, 부루노, 맨, 맥키완 등이 個別국가의 경제를 programming model로 實證的 研究를 하는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다. 輸出增大, 輸入代替 혹은 外國援助는 外換갭을 메꾸기 위하여 혹은 隘路를 타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며 특히 輸出의 가능성은 經濟開發의 水準이 上昇된 후 가능할 것이다.

소위 貯蓄갭(savings gap) 및 外換갭(foreign exchange gap)과 經濟開發과의 관계는 체

(59) H. Myint,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P.A. Samuelson, ed., *op. cit.*, p.26.

(60) R.I. McKinnon, "Foreign Exchange Constraint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Efficient Aid Allocation," *Economic Journal*, Vol. 74, 1964, p.388.

너리와 스트라우트가 展開한 바 있다.<sup>(61)</sup> 이 理論에 의하면 經濟開發을 制約하는 것은 이상의 兩 變의 크기이며 이러한 變은 國內資源(國內貯蓄)과 海外資源(海外貯蓄)간의 非代替性을 가정하므로 古典學派理論下에서와 같이 相互代替性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模型에서는 만일 國內貯蓄 gap이 支配的인 經濟狀態에서는 輸出增大가 반드시 成長을 촉진시키지 못하며 만일 外換變이 支配的이라면 國內貯蓄의 增大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비록 國內貯蓄은 增大하더라도 輸出의 不振은 필요한 原料나 工具 등의 輸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國內貯蓄을 이용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sup>(62)</sup>

헤로드-도마型 成長模型을 이용하여 開發途上國의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는 模型은 존슨과 맥키논, 체너리와 스트라우트 등에 의하여 展開되었다.<sup>(63)</sup> 그러나 존슨의 模型은 外國資本財가 國內經濟의 生産能力에 直接的으로 영향을 미치고 輸出도 海外需要에 消極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國內經濟成長과만 직결되어 있다. 존슨은 換率이 固定되고 資本移動이 있는 경우와 換率이 流動적이고 資本移動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두 경우에 헤로드-도마型 經濟成長의 均衡成長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맥키논은 체너리의 「海外援助와 經濟開發」이라는 論文(1963年 12月 計量經濟學會發表; 1966年 스트라우트와 *American Economic Review*에 게재함)에서 많은 示唆와 아이디어를 받은 후 그들보다 먼저 이 문제에 관한 論文을 발표하였다. 그의 論文의 내용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sup>(64)</sup>

- (61) H.B. Chenery and M. Bruno, "Development Alternatives in an Open Economy: The Case of Israel," *Economic Journal*, Vol. 57, 1962, pp.79-103. A.S. Manne, "Key Sectors of the Mexican Economy, 1960-1970," A. Manne and H.M. Markowitz ed., *Studies in Process Analysis*, John Wiley, New York, 1963. H.B. Chenery and A. Strout, "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66, pp.679-733. H.B. Chenery and A. MacEwan, "Optimal Patterns of Growth and Aid, the Case of Pakistan," I. Adelman and E. Thorbecke ed., *op. cit.*, pp.149-178.
- (62) Ajit K. Dasgupta, *Economic Theory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MacMillan Co., London, 1974, p.117. 그러나 Ronald Findlay는 國際貿易의 純粹理論의 立場에서 外換制約(Foreign Exchange Constraint)의 理論을 분석한 후 만일 輸入의 대상이 投資財와 消費財인 경우에는 國內貯蓄性向의 增加가 先進國의 經濟成長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 R. Findlay, "The Foreign Exchange Gap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J.D. Bhagwati *et al.*, ed., *Trade, Balance of Payments and Growth*, pp.168-182. 비슷한 分析에 의한 two-gap理論의 비판은 다음도 參照할 것. J. Bhagwati, "The Balance of Payments Difficulties of the Ten Developed Countries," *Measures for Trade Expansion of Developing Countries*,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Paper No. 5, 1966.
- (63) Harry G. Johnson, "Equilibrium Growth in an International Economy,"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XIX, No. 4, Nov. 1953, pp.478-500, reprinted in H.G. Johns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Growth*, Allen & Unwin, London, 1965, pp.120-149. R.I. McKinnon, "Foreign Exchange Constraint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Efficient Aid Allocation," *Economic Journal*, Vol. 74, 1964, pp.388-409, reprinted in J. Bhagwati ed., *International Trade*, Penguin Modern Economics, London, 1969, pp. 370-398. H.G. Johnson, *op. cit.*, p.121 passim(고정 환율), p.139 passim(변동 환율).
- (64) R.I. McKinnon, *op. cit.*, pp.372-395(基本模型형성 과정).

메키는 外國財貨가 國內生産函數에 投入으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로드—도마형 成長模型에 약간의 변질을 가하여 다음과 같이 再整理하였다.

레온티에프型 固定係數生産函數를 고찰할 때  $P$ 를 甲國의 生産能力, 그리고  $K_d$ 와  $K_f$ 를 각각 國內에서 生産된 資本財와 輸入된 資本財라고 하면

$$P = \min(\alpha K_d, \beta K_f), \quad \alpha > 0, \beta > 0 \dots\dots\dots ①$$

가 될 것이다. 이 때  $K_d$ 와  $K_f$ 의 單位는 產出 가능한  $P$  1單位가  $K_d$  1單位를 생산하든가 交易條件의 不變下에  $K_f$  1單位를 수입하는 것이다.

國內貯蓄은 國內所得과 다음과 같은 함수 관계에 있다.

$$\max S = sY, \quad 0 < s < 1 \dots\dots\dots ②$$

이때  $Y$ 는 國內生産要素에의 反對給付의 總計이며 國內生産能力  $P$ 를 이용할 때 나타난다. 總投資( $I_t$ )는 國內貯蓄( $S_t$ )과 海外資本移轉( $F_t$ )과 같으므로

$$I_t = S_t + F_t \dots\dots\dots ③$$

初期에 海外資本移轉은 零이고 國內生産이 필요한 外國資本財를 輸入할 수 있도록 輸出 된다면 國內成長을 制約하는 것은 國內貯蓄뿐일 것이므로

$$S_t = \max S_t \dots\dots\dots ④$$

가 될 것이다.

國內所得은 最大生産能力和 같을 것이므로

$$\frac{dY}{dt} = \frac{dP}{dt} \dots\dots\dots ⑤$$

$\frac{dP}{dt}$  즉 生産能力의 변화는 純投資水準과 함수관계에 있으며 ①式에서 새로운 한 單位의 生産能力에  $K_d$ 가  $1/\alpha$ 單位,  $K_f$ 가  $1/\beta$ 單位를 필요로 하여 新投資에 필요한 國內生産은  $1/\alpha + 1/\beta$  單位일 것이므로

$$\frac{dP}{dt} = \frac{1}{\frac{1}{\alpha} + \frac{1}{\beta}} I = \frac{1}{\frac{1}{\alpha} + \frac{1}{\beta}} sY \dots\dots\dots ⑥$$



만일  $1/\alpha + 1/\beta = \sigma$ 라 한다면  $\sigma$ 는 해로드-도마模型的 產出 對 資本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즉

$$\frac{dP}{dt} = \frac{dY}{dt} = \sigma_s Y \dots\dots\dots ⑦$$

따라서

$$Y_t = Y_0 e^{\sigma_s t} \text{ 혹은 } P_t = P_0 e^{\sigma_s t} \dots\dots\dots ⑧$$

가 될 것이다.

주어진 交易條件下에서 필요한 外國資本財를 購入할 수 있도록 輸出可能性이 무제한이라고 하면 ⑧式에서  $\sigma_s$ 는 成長率을 의미한다.

後進國에서 輸出이 無制限可能한 것이 아니라 國內工業化과정에 따라 變化될 生産能力의 成長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輸出函數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max X = \epsilon P, \quad 0 < \epsilon < 1 \dots\dots\dots ⑨$$

⑨式에서  $X$ 는 輸出이며 不變價格下에서  $P, K_d, K_f$ 와 같은 單位로 측정된다.

만일  $\epsilon$ 가 너무 적어 輸出이 外國資本財輸入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면 成長率  $\sigma_s$ 는 달성이 어려워지며 外國部門에서 隘路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外國資本財의 導入  $\left(\frac{dK_{ft}}{dt}\right)$ 은 外國投資( $I_{ft}$ )를 의미할 때 特定的  $\sigma_s$ 率을 유지하기 위하여 外國投資의 特定水準이 필요할 것이다. 外國部門의 隘路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外國投資財의 導入이 輸出보다 적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狀況은 國內에서 外國資本財에 대한 需要가 적든가 혹은 輸出能力이 강한 두 경우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매किन은 外國資本財 需要가 높든가 輸出能力이 낮아 隘路部門이 생성할 때 外國援助등 移轉收入은 經濟成長率에 큰 效果를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체너리와 스트라우트는 5~10年間的 短期的 經濟成長을 설명하기 위하여 매किन과 비슷하게 해로드-도마型 傳統에 따라 線型關係를 기술하고 있다.<sup>(65)</sup> 그들의 基本模型은 生産資源의 動員과 配分에 미치는 外國資源(external resources)의 영향을 구명하고 있으며 그들은 生産資源으로 ① 勞動供給, ② 國內貯蓄 그리고 ③ 輸入된 財貨와 用役의 供給을 들고

(65) H.B. Chenery and A.M. Strout, "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VI, No. 4, Sep. 1966, pp.679-733.

있다.<sup>(66)</sup>

그들의 基礎模型 혹은 두 갭理論(two-gap theory)의 根幹은 매키논의 接近法과 비슷하나 주로 체너리와 부루노가 이스라엘경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形成하였던 模型을 援용하고 있다.<sup>(67)</sup> 즉 이 理論은 熟練度(skills)와 國內貯蓄에 의하여 經濟成長이 制約받게 되는 投資制限型成長(investment limited growth)과 國際收支가 經濟成長을 制約하는 貿易制限型成長(trade limit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다. 前者의 경우는 經濟成長을 制約하는 要因이 國內的 要因에만 의존하는데 반하여 後者の 경우는 經濟成長을 制約하는 要因이 海外部門에도 存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바로 輸出이 經濟成長의 制約點을 完化해 줄 수 있는 變數로 도입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체너리-스트라우트의 投資制限型成長模型은 다음과 같다.

$$V_t = S_t + C_t \dots\dots\dots ①$$

$$S_t = I_t - F_t \dots\dots\dots ②$$

式 ①과 ②에서  $V_t$ 는 GNP,  $S_t$ 는 貯蓄,  $C_t$ 는 消費,  $I_t$ 는 投資 그리고  $F_t$ 는 外國資本의 純導入을 의미하며 ①과 ②式은 恒等式이다. 해로드-도마模型의 假定에 의하면 生産의 增大에는 特定量의 投資가 필요하므로 生産可能限界 (capacity limit)는

$$V_t \leq V_0 + \frac{1}{K} \sum_{T=0}^{t-1} I_T \dots\dots\dots ③$$

가 될 것이다.

式 ③에서

$$K = \frac{I_{t-1}}{V_t - V_{t-1}} = \frac{I_{t-1}}{\Delta V_t}$$

投資能力의 制限(limit on ability to invest)은

$$I_t \leq (1 + \beta) I_{t-1} \dots\dots\dots ④$$

式 ④에서 極大의 투자증가율  $\beta$ 는 熟練度, 經營技術, 관리들의 能力 등 投資財源의 흡수 능력을 의미한다.

(66) 이들의 勞動供給은 量的 供給이라기 보다 質的 側面에 관한 供給 즉 熟練度(skills)와 經營능력(organisational ability)을 의미한다. *Ibid.*, p.681.

(67) H.B. Chenery and M. Bruno, "Development Alternatives in an Open Economy: The Case of Israel," *Economic Journal*, Mar. 1962, pp.79-103.

貯蓄制限(savings limit)은

$$S_i \leq \bar{S}_i = S_0 + \alpha'(V_i - V_0) \dots\dots\dots ⑤$$

式 ⑤에서  $\bar{S}_i$ 는 潛在總貯蓄,  $\alpha'$ 는 限界貯蓄性向( $\Delta S/\Delta V$ )을 의미한다.

目標成長率(target growth rate)  $r$ 은

$$V_i \leq (1+r)V_{i-1} \dots\dots\dots ⑥$$

이 된다.

이들의 模型에서 第1期(Phase I)에는 投資가 年平均 100 $\beta$ %로 增加하며 GNP成長率은 加速化된다. ③과 ④式에서 外資의 水準은

$$F_i = F_0 + (\beta k - \alpha')(V_i - V_0) \dots\dots\dots ⑦$$

로 결정될 것이다. 즉 ⑦式에서 外國資本의 增加( $F_i - F_0$ )는 國內投資와 貯蓄의 增加分の 差異를 補完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第2期(Phase II)에는 限界貯蓄率이 目標成長率 달성에 필요한 投資率을 초과하며 이러한 경우 外資의 필요성은 遞減할 것이다.

貿易制限型成長에서는 第2期는 더욱 중요한 時期로 나타나게 된다. 체너리와 스트라우트에 의하면 第1期에는 外資의 導入으로 國際收支에의 壓力을 해소시키고 第2期에 이르러서는 輸出의 伸張率이 輸入의 增加率보다 빠르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들 論文에 의하면 初期에는 投資와 저축의 누적적 差異에 의하여 外國資本의 크기가 결정되었으나 後期에 이르러서는 輸入需要와 輸出의 差異에 따라 外國資本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輸出의 比重은 經濟가 成長의 速度를 加速化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상에서 略述된 매किन과 체너리-스트라우트의 二重模型은 輸出이 經濟를 先導하는 模型으로서가 아니라 經濟成長의 制約條件인 海外貯蓄을 增加시키는 한 方案으로서 消極的 役割에 대하여 취급되었다. 이와 같은 模型에서 外援은 國內貯蓄을 限界의 으로 보완할 뿐 만 아니라, 經濟成長에 매우 중요한 要素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後進國에 있어서 外換과 貯蓄은 모두 중요한 成長制約要素일 것이다. 國內貯蓄이 充分할 때 外換의 制約은 輸出增大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輸出의 增大는 利潤率의 上昇과 더불어 企業貯蓄의 可能性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國內貯蓄과 外國援助의 關係를 實證的으로 연구한 그리핀(K. B. Griffin)과 에노스(J. L. Enos)는 外國援助의 增加가 國內貯蓄

을 오히려 減少시키는 경향을 발견하였다.<sup>(68)</sup> 이러한 國內貯蓄의 減少경향은 海外援助資金이 사치풍조의 助長, 國內貯蓄增大에 대한 政府努力의 鈍化, 外國企業의 配當金 分配政策 등에 기인하겠지만 外換값을 메꾸어 目標成長을 달성시키는 變數로서 輸出과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 III. 輸出先導型 成長; 몇개의 實證的 研究

東南亞國家들로서 버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의 경제성장(1946—60年間) 패턴에 관한 比較研究는 민트가 시도하였다.<sup>(69)</sup> 그는 이 論文에서 버마나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 등은 對外指向의인 開發政策을 형성하였고 분석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植民主義的 經濟패턴의 피해자이며 反感도 적지 않았으나 이들이 經濟成長을 加速化시키는 유일한 길은 輸出量의 擴大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假定하에 政策을 수립하였다. 물론 初期에 이들 국가들의 輸出은 주로 外國人所有의 鑛山이나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되는 輸出品이 大宗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은 外國人企業이 활동할 수 있는 經濟的 環境을 조성시켜주어 새로운 投資를 통하여 새로운 輸出品의 生産과 生産技術의 革新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필리핀이나 태국은 중국적으로 外國企業의 株式이 대부분 內國人에 의하여 흡수될 것을 指向하였으나 外國人들은 이러한 移轉이 強制가 아니라 市場價格으로 株式이 매매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따라서 生産活動에 위축이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外國企業과 內國人企業에게 經濟的 誘因을 주었으나 결코 自由放任的 政策보다는 個人企業의 競爭力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政府支援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버마와 인도네시아는 資源의 收奪을 방지한다는 名目下에 外國人企業을 國有化하였고 自體內에서 生産을 촉진시키지도 않았다. 輸出(특히 버마)은 戰前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經濟成長은 鈍化되었다.

日本의 經濟成長과 海外貿易의 관계를 분석한 바바 마사오와 다메모도 마사히로는 1868년부터 1896年間的의 경제성장은 輸入代替産業에 육성에 의하여 가능하였다고 특징짓고 있으며 1897년부터 1914년까지의 경제성장은 工產品輸出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었다고 하였다.

(68) K.B. Griffin and J.L. Enos, "Foreign Assistance: Objectives and Consequenc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Apr. 1970. Stanley Please, "Please Effect," IBRD Working Paper.

(69) H. Myint, "The Inward and Outward Looking Countries of Southeast Asia," *Malaysian Economic Review*, 1967, pp.1-15. 東南亞의 經濟에 관한 研究는 그 외에도 다음을 參照. Douglas S. Paaaw, "Economic Progress of Southeast Asia," *Journal of Asian Studies*, Nov. 1963.

日本은 初期에 一次産品을 輸出하였으나 이러한 貿易패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半製品 輸出을 成長의 媒介體로 이용하였다. 明治下 日本政府는 당시 比較優位가 없던 産業部門에 政府企業을 설립하였고 이러한 政府의 努力은 民間企業의 成長을 유발시켰다. 특히 1895年~1898年間 淸日戰爭의 결과로 中國으로부터 받은 3,700萬파운드(3億6,500萬圓)는 戰費 2億圓을 훨씬 上廻하는 금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1894年~1903年에 걸친 10年間的 輸入赤字(3億5,200萬圓)과 같은 크기였다. 戰爭賠償金과 外國資本은 産業構造를 變革시키는데 필요한 資本을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1887年에 이르러 國內幼稚産業들은 國際市場에서 競爭力이 강화되어 比較優位가 높은 産業이 되었다.

輸出의 成長에의 寄與度는 第1次大戰중 輸出붐을 타고 높아졌으며 1920年~1937年間에는 더욱 그 寄與度가 높았다. 그들은 5年 平均値에 준하여 1876年~80年—1894年~98年間 輸出이 經濟成長에 공헌한 것은 8%에 불과하지만 1895年~99年과 1911年~15年間에는 29%, 그리고 1921年~25年과 1934年~38年間에는 輸出의 成長率 寄與度가 무려 39%를 上廻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sup>(70)</sup>

第2次大戰 이후 日本의 經濟成長과 輸出의 關係를 분석하면서 가나모리 히사오(金森久雄)는 만일 輸出先導型 經濟成長을 ① 經濟開發에 대한 一次的 자극이 海外에서 유발되고 ② 輸出의 增大가 이 자극에 의하여 增大된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戰後 日本經濟는 輸出先導型 經濟라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sup>(71)</sup> 그는 日本輸出增大의 主要原因인 競爭力增加와 輸出商品構成의 變化는 國內投資와 國內市場의 擴大에 의하여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나모리는 第2次大戰 이후 日本經濟開發의 戰略을 놓고 海外貿易方法論者와 國內開發方法論者間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統計資料에 의하면 世界經濟가 戰爭 및 恐慌 등의 變化에 크게 취약할 것이며 植民地의 損失은 低廉한 農産物供給源과 日本의 工産品市場을 잃게 하였고 貿易의 強制的 擴大는 輸出價格을 낮추어 交易條件을 不利하게 할 것이며 輸出增大는 賃金率의 減少를 수반하게 될지 모른다면, 後者의 우려는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sup>(72)</sup>

日本이 賃金率을 減少시키거나 交易條件을 惡化시키지 않고도 輸出을 增大시켜 高度의 經濟成長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가나모리는 戰後世界貿易量의 成長과 때를 맞추어 日

(70) Masao Baba and Masahiro Tatemoto, "Foreign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Japan: 1858-1937," L. Klein and K. Ohkawa ed., *Economic Growth: The Japanese Experience since the Meiji Era*, pp.162-182.

(71) Hisao Kanamori, "Economic Growth and Exports," L. Klein and K. Ohkawa ed., *op. cit.*, pp.319.

(72) *Ibid.*, pp.304-308.

本이 이에 적극 참여하였고 生産性的 增加로 單位勞動費用을 감소시켜 交易條件을 유리하게 유지하면서 낮은 輸出價格으로 國際競爭力을 固守할 수 있었던 데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日本의 輸出構造는 輕工業製品(의류, 섬유직물)으로부터 重化學製品으로 변화하였다. 日本은 戰後世界需要의 增大에 알맞도록 所得彈力性이 높은 商品보다는 成長에 不適한 商品構成比를 갖고 있었으나 日本은 商品構成比에 革新的 變革을 일으켜 輸出增大를 가능케 하였고 交易條件을 유리하게 유지하였다. 國內으로는 日本이 다른 工業國들보다, 豊富한 勞動과 희소한 資本을 갖고 있어 産業間賃金の 격차는 매우 심했고 따라서 低賃金産業이 輸出에서 比較優位를 갖게 되었다. 經濟成長의 결과 過剩勞動이 흡수되고 低賃金産業의 勞賃이 上昇하면서 産業間的 賃金격차가 좁아지게 되자 低賃金産業의 利點이 소멸하기 시작했고 자연히 高度의 技術集約的, 資本集約的 生産方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가나모리流의 輸出先導型經濟의 規定에 따른다면 日本經濟는 輸出에 의하여 主導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나 國內經濟條件의 개선에 의한 輸出需要에 알맞게 適應하였으며 이러한 輸出伸張을 통하여 經濟가 急成長할 수 있었던 사실을 상기 할 때 日本經濟成長과 輸出은 매우 相關關係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第一次大戰 이전 영국과 프랑스의 經濟成長과 輸出의 關係를 구명한 킨들버거는 産業革命 이후 輸出이 英國의 經濟成長을 先導한 것은 18世紀 後半期の 마지막 20餘年과 1850年代에서 1860年代에 걸친 20餘年이라 하였다. 1850年~60年代는 프랑스에서도 수출이 成長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sup>(73)</sup>

1850年代 英國에서 輸出의 伸張率은 年平均 5.3%였는데 반하여 輸入은 4.5%의 成長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貿易의 擴大는 鐵道施設의 擴張과 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조치가 生産性を 증가시켜 特化를 조장시키고 費用을 節減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金の 발견, 輸送費의 遞減, 英國의 海外投資 등이 영국의 輸出을 增大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850~1870年 사이에 英國은 印度와 美國에게 鐵道架設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터키와 이집트 등에도 크레미아戰爭과 관련있는 외국차관을 제공하였다. 이 기간동안의 英國이 제공한 차관액은 약 8億파운드에 상당하였다. 프랑스는 1850年~1880年 사이에 약 8億파운드 상당의 차관을 주로 獨逸,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에 제공하였다.

(73) C.P. Kindleberger, "Foreign Trade and Economic Growth: Lesson from Britain and France, 1850 to 1913," *The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Vol. XIV, No. 2, 1961, pp. 289-305, reprinted in J.D. Theberge, *Economics of Trade and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New York, 1968, pp.46-66.

킨들버거는 영국에서는 輸出增大가 農業部門으로부터 工業部門으로 資源을 再分配시켜 生産性이 높은 部門의 比重이 집중하여 經濟成長의 촉진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는 輸出에 의한 技術革新이 成長의 媒介體가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영국에서도 鐵道施設에 대한 海外需要의 急増으로 隘路部門의 塔架책으로 기관차의 改善이 이루어졌고 프랑스에서도 農業部門의 失業人口가 都市건설, 철도 부설, 製造業 및 流通部門으로 흡수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19世紀 後半期の 輸出이 英國의 産業部門에 미친 效果를 投入產出接近法에 의하여 분석을 시도한 마이어(John R. Meyer)는 英國經濟成長의 둔화는 만일 1854년부터 1872年 사이에 보였던 輸出伸長率이 1907年까지 계속되었다면 經濟成長率은 기록된 年平均 1.75%보다 훨씬 높은 4.1%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輸出伸長率의 둔화가 經濟成長을 크게 抑制시켰다고 주장하였다. (74)

루이스도 비슷하게 輸出과 成長의 關係를 전개시키면서 英國經濟成長의 둔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輸出은 投資와 다른 需要를 직접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기 보다 오히려 國際收支의 逆調가 유발시킬 디플레이션現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資源이 희소한 나라에서는 활발한 國內投資가 유발시킬 原資材 혹은 食料품의 輸入을 充當할 수 있도록 輸出이 증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輸出의 伸張이 여의치 못하다면 國際收支의 均衡을 달성하기 위하여 디플레이션정책이 필요하고 따라서 投資와 成長은 둔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75)

에머리(Robert F. Emery)는 輸出과 經濟成長의 關係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輸出이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役割을 하였다는 사실을 구명하였다. (76) 그는 全世界의 50個國을 標本으로 하여 輸出과 1人當 實質GNP 사이의 相關關係에서 다음의 結果를 발견하였다. 즉

$$y=0.20+0.4x \dots\dots\dots \textcircled{1}$$

①式에서 x는 輸出, y는 1人當 實質GNP를 意味한다. ①式은 輸出이 약 2.5% 增加할 때

(74) John R. Meyer, "An Input-Output Approach to Evaluating the Influence of Exports on British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Late 19th Centuries,"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VII, 1955, pp.12-34.  
 (75) W.A. Lewis,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Manufactur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XLVII, 1957, pp.578-87.  
 (76) Robert F. Emery, "The Relation of Exports and Economic Growth," *Kyklos*, No. 20(2), 1967, pp.470-484.

마다 1人當 實質GNP는 1%씩 增加하는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에머리는 높은 輸出伸張率과 높은 經濟成長率 사이의 關係를 구명하면서 特定國家의 經濟成長率이 輸出과 아무런 關係없이 短期的으로 높을 수는 있으나 外國資本의 流入이 가능하지 않다든가 對外準備高가 낮은 國家일수록 이러한 經濟成長率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豫測하고 있다. 따라서 高度의 成長率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輸出을 촉진시킬 수 있는 政策의 채택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은 換率의 現實化와 이러한 換率을 유지할 수 있도록 財政 및 金融政策을 施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7)</sup>

---

(77) *Ibid.*, p.484.